

이웃과 함께 나누는 추수감사절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북한 선교 바자회

10월 19일은 추수감사절이다. 주님의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절기를 이웃과 함께 뜻있게 보내기 위한 행사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걷기대회와 통일선교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제5회 “다문화가족과 새터민 청소년이 함께하는 걷기대회”가 10월 25일 오전 8시 30분에서 11시까지 주님의교회에서 양재천 독방길을 거쳐 영동5교를 왕복하는 6km코스에서 펼쳐진다.

전교인과 송파구, 하남시의 다문화가족, 하늘꿈학교의 새터민 학생들, 가락본동어린이집 가족, 우성아파트 주민과 인근 지역주민, 늘푸른대학 학생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교구별, 초청 단체별로 출발하며, 코스 중간마다 기념사진 촬영 및 바자회 쿠폰 추첨이 이어질 예정이다. 초청 손님들은 걷기 대회 후 이어지는 바자회에 참가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예정이다. 참가교인들은 이웃사랑 성금으로 1만원을 납부하며, 이 성금은 다문화가족

및 새터민 청소년, 경로당 어르신 등의 선물을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통일선교를 위한 전교인 바자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선교 바자회가 10월25일 토요일 오전11시부터 오후3시까지 교회 주차장과 제3집회실에서 펼쳐진다. 3주간에 걸친 각 교구별 자원봉사자와 성도들의 도움으로 많은 기증 물품이 접수되었다. 이번 바자회는 기증 물품과 각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먹거리, 북한 이탈주민팀의 북한음식(인조고기, 두부밥 등), 농

어촌교회와 함께하는 직거래장터, 그리고 해외선교팀 중 케냐팀과 기르키즈스탄팀 코너와 탈북청소년 하늘꿈학교 코너 등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될 예정이다. 산지 직송 정선지역 특산물과 4주전에 직접 담은 오미자 엑기스, 건어물(미역, 다시마), 여성의류, 고급 구두, 악세사리 등도 마련되어 있다.

이번 바자회의 수익금은 국내 하나원을 출소하는 탈북자들의 생필품 지원 및 북한 결핵제로 본부 등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탈북사역을 위해 쓰여진다. **함글함글**



2014년 항존직 선거 결과 발표

장로 1, 권사 13, 안수집사 15명 피택

지난 10월 5일의 1차 투표, 12일의 2차 투표로 진행된 2014년 항존직 선거 결과, 장로피택자 심동욱 외 권사 13, 안수집사 15명이 항존직으로 피택되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추천과정에 제직 부서장과 겨자씨 인도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중직 리더의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한 점이다. 또한, 후보자의 자격중 하나인 과거의 '12단

계 성경공부'와 '겨자씨 참여 여부' 항목을 '목양 프로그램 이수 여부'와 '교회 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라는 항목으로 다양화하여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혔다. 최종 후보자의 자격에 '신앙의 기본 자세(주일성수, 십일조)' 항목과 '신앙의 건전성(이단, 사이비 연루 여부 등)'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추천·공천·공동의회 선거 등 모든 투표과

정에서 기표 용지를 OMR카드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와 집계가 가능토록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 여러 과정을 진두지휘한 선거관리위원장 김성구 장로는 선거 결과를 발표하면서, “항존직 선거는 우리 주님의교회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절차입니다. 그동안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로 선거에 참여해 주

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피택된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무겁게 생각하며, 온전한 신앙과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우리교회가 반석위에 더욱 든든해지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 피택자 명단 5면

함글함글

2014년 특집 I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올해 노벨평화상 받은 열 일곱 살 소녀 말랄라

“한 명의 어린이가,
한 사람의 교사가,
한 권의 책이,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지난 10일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인권 운동가인 파키스탄의 17세 소녀 말랄라와 인도의 아동 노동 근절과 교육권 보장 운동을 이끄는 사티야티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에 대한 억압에 맞서 싸우고, 모든 어린이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투쟁한 공로를 인정해 이들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1세의 나이에 여학생의 등교를 막고 여학교를 불태우는 무장단체 파키스탄 탈레반(TTP)을 비판하는 블로그 활동을 하던 말랄라는 2012년 10월 학교가 끝난 후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탈레반의 공격을 받아 머리와 목에 총상을 입었다. 전 세계에서 말랄라의 패유를 비는 응원이 넘쳐났고, 영국으로 이송돼 대수술을

받은 말랄라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며, 회복을 마치자 곧바로 인권 운동을 재개했다. 지난 7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초청을 받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공식 연설도 했던 말랄라는 인권 운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꾸준히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다가 올해 마침내 수상자로 선정됐다. 말랄라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 명의 어린이가, 한 사람의 교사가, 한 권의 책이,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세계 지도자들에게 어린이 무상교육 지원을 요청했다.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비정부기구 ‘바치판 바차오 안돌란’을 이끌고 있는 사티야티는 1990년대부터 불법 아동 노동을 근절하고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 운동을 펼쳐온 인물이다. **함글함글**

교단소식

“천주교회, 다른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

교단 기관지인 기독교공보(2014. 10. 4)는, 로마(천주)교회에 대한 본교단 입장은 “우리와 다른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로 보아야 한다”로 정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제99회 총회 회무 4일차인 25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가 보고한 로마(천주)교회에 대한 연구결과를 총대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대위는 보고를 통해 “로마교회에 대해 몇몇 노회가 이단성 여부라든가 우리 교단과의 관계성을 질의해왔는데,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와 다른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로 보자”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대위는 “교리적으로 답한다면 로마교회에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혁자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부패하고 이단적이었던 로마교회가 현실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로마교회가 반사회적이라거나 반윤리적인 다른 이단집단과 같다고 하기도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한 그동안 총회 결의가 없어 계속해서 문의가 있어온 몰몬교와 여호와의증인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규정했다. 몰몬교에 대해서는 “한 개인의 신비적 체험과 환상, 그리고 신비주의적 상상력에 기초한 교리에 의존하고 있다”며 “자신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영적교만과 편협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으며, 유일신 신앙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 신성을 부인하고, 조셉 스미스를 신격화하는 이단”이라고 발표했다. 여호와의증인에 대해서는 “성경을 신비적, 상징적으로 해석할 뿐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심각한 성경해석 오류를 가지고 있으며,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며, 지옥을 부인하고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즉, 기독교의 정통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단”이라고 결론 내렸다.

함글함글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65

火祭 (화제) 搖祭 (요제) 擧祭 (거제) 奠祭 (전제)

여호와와 火祭物(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搖祭(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擧祭(거제)를 삼을 지니(레위기 7:30~32)

奠祭(전제)와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디모데 후서 4:6)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1. 火祭(화제): 제물을 불에 살라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제사.
2. 搖祭(요제): 제물의 가슴을 제사장이 앞뒤로 흔든 후에 드리는 제사.
3. 擧祭(거제):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이 위로든 후에 드리는 제사.
4. 奠祭(전제): 포도주나 독주를 제사장이 부어드리는 제사.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火(불 화. 급할 화): “불꽃이 타오르는 모양”을 상형화한 글자로 (타오르는 불길에 급하다)는 의미를 부여 하였다.

★搖(흔들 요): “손의 행위”를 상징하는 手(손 수)의 변형체 扌(재방변)에 “질그릇, 술병”을 뜻하는 肫(질그릇 요. 술병 요)를 합쳐 (손으

로 술병을 흔든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擧(들 거): “여럿, 주다”의 뜻을 지닌 與(더불어 여. 줄 여)와 “손의 행위”를 상징하는 手(손 수)가 결합하여 (여럿이 더불어 손을 합하여 들어 올린다)는 의미가 되었다.

★奠(술 따를 전. 천거할 전): “윗사람, 우두머리”를 뜻하는 酋(두목 추)와 大(큰 대)를 결합하여 (우두머리에게 큰 잔으로 술을 따라 올린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祭(제사 제): “고기”를 상징하는 肉(육달 월. 고기 육. 몸 육)과 “손”을 의미하는 又(또 우)와 “제사그릇이나 神(신)”을 뜻하는 示(보일 시)를 결합하여 (고기를 손으로 장만하여 제기에 올리고 신에게 제사 지낸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함글함글**

섬기는 손 11



목수일 하면서 틈틈이 태풍으로 날아간 농어촌 교회 낡은 지붕을 새로 엮거나, 예배드라마 세트를 만들거나, 전시회 액자를 만들거나, 누구라도 청하면 마다하지 않고 말없이 헌신하는 재능기부의 손.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글함글**

장학위원회 소식

주님의교회 장학위원회에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2014년 하반기 장학금(고등학생은 3/4분기)이 9월 24일~25일 최종지급이 결정된 학생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지급내역은 대학생 19명 53,771,100원, 고등학생 7명 3,054,620원(정신여고 16명 장학금 신청 예정인원 제외), 합계 26명에게 56,825,720원을 전달하였다.

이번 장학금지급 대상자 결정시에, 장학위원회에서는 기존의 2년 제한 규정을 없애, 고등학교 재학 시 2년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도 대학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학자금 마련을 위해 아

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대학교 학점을 잘 받지 못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생들에게도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장학금 혜택 소식을 듣고 교회에 감사한다는 연락을 주신 대상 학생 부모님 또는 본인의 뜻을 교회헌금을 통해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 교회 장학금 제도를 통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회장학금 신청은 2015년 2월초에 있을 예정이다. **박철수** 장학위원회

농어촌 교회 선교

보령 성주 성광교회를 다녀와서



농어촌 교회 선교팀과 도시개척교회선교팀, 호스피스팀, 이미용팀, 사진팀보령 성주 성광교회에서 미자립교회 봉사를 다녀왔다.

농어촌 교회선교팀에서는 10월 9일, 충남 보령 성주 성광교회에 미자립교회 봉사를 다녀왔다.

30여 명이 참가한 봉사현장에 농어촌 교회선교팀, 도시개척교회선교팀, 호스피스팀, 이미용팀, 사진팀 등 5개 선교팀이 참여하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

호스피스팀에서는 발마사지와 4개 가정을 방문하여 호스피스케어를 진행했고, 사진팀에서는 25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장수사진을 찍어드렸으며, 이미용선교팀에서는 많은 어르신들 파마와 머리손질을 해드렸다.

보령 산골 오지 마을 폐광촌에 있는 성광교회는 아동이 50여명이 출석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작은 교회다. 유재운 성광교회 담임목사는 “지역복음화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교회 농어촌교회선교팀의 물심양면의 섬김과 봉

사 때문이었으며, 피아노, 책도 보내주고 격려와 비전을 제시해 주신 은혜로 일구어 낸 열매이고, 그 사랑의 손길로 학습도구가 준비되었고 음악을 할 수 있는게기가 되었다”고 하며, “그 배후에 기도와 섬김의 열매로 교회 학교 50여명을 매일 365일 함께 신앙교육으로 교육하고 있다”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성광교회에서는 오지 산골마을인 성주면 2개 학교와 미산면1개 학교 300명 아동들을 교회에서 돌볼 수 있는 교육장소 건물을 지금 건축하고 있다. 기존 교육장소로는 비좁고 환경이 열악하여 기도를 드렸는데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다면서, 교육장소를 위해 120평 건물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주님의교회 봉사팀이 온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교인들 모두 주님께 눈물의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전했다.

함글함글

간증

예기치 않는 눈물

예기치 않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난주인 9월 20일 에바다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학위원회 3분께서 친절히 맞이해주셨고, 담당 집사님께서 따스한 음성으로 변경된 장학위원회 규정들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설명이 진행되던 중 “전도사님 이번에는 전액 장학금이 나갑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저는 에바다실을 뛰쳐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멈출 생각 없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에바다실에서 나와 지하1층 화장실을 향했습니다.

올해 6월에 결혼함과 동시에 재정적인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리 넉넉지 않은 형편이기에 1학기 때부터 학자금대출로 학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금융거래인 학자금 대출이 은근히 저를 누르고 있을 때에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이뤄진 장학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주님의교회에 감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신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주신 장학금으로 자신만의 성벽을 지은 채로 살아가는 캐슬빌더(Castle builder)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킹덤빌더(Kingdom builder)로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준하** 전도사

늘푸른 대학가을나들이

섬김과나눔에서 섬기는 늘푸른대학어르신들이 가을의 속살을 찾아 정취가 있고 생동감이 있는 늘푸른대학 11번째 나들이를 다녀왔다. 4대의 버스에 나뉘어 탄 160여 명의 어르신들은 10월 14일 화요일 과천 대공원에서 초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함께 나누고, 함께 잔디밭을 거닐며 보물찾기를 하며, 동심으로 돌아가 선물을 나누며 즐거워하고 함께한 시간들, 10월의 새로운 날들 추억 속에서 함께한 모두가 구름 위를 걷는 듯 보인다.

함글함글



알립니다

주인을 찾습니다

사무국에서 장기 보관중인 스카프, 안경, 가방 등 성도 여러분의 분실물을 전부 정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폐기 전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 일괄 폐기 예정일 : 2014. 10. 26. 16시

- 보관장소 및 문의처 : 사무국

로렘나무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와서

예수친구사역 2기 수련생들이 3단계 교과과정으로 국내 기독교성지를 1박 2일의 빡빡한 일정으로 순례하였다. 10월 10일 이른 아침 세 분 교역자와 함께 처음 방문한 인천시 부평구소재 한국선교역사기념관에서는 천지창조에서부터 노아의 홍수(심판)를 거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간구원 역사까지 성경드라마의 한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고, 한국기독교관에서는 천주교 전래와 4대박해,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선교사에 의하여 이땅에 개신교가 처음 전파되는 모습, 널다리골 주막에서 처음 시작된 교회가 장대현교회가 되고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을 주도하게 되는 과정과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복음화시키고 들어 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일제 만행의 현장 제암리교회로 향했다.

안창호, 안중근 등 기개가 높은 신앙인을 배출한 순흥안씨 집성촌 두령바위(제암)마을 주민들은 1905년에 교회를 세울 정도로 깨어있었고 교회를 중심으로 강한 단결력을 지니고 있어 일제에게 굽신거리지 않

았고 3.1만세 운동에도 적극 가담하였다. 이에 공명심에 들뜬 일본군 육군중위 아리타가 병사들을 동원하여 눈에 가시같은 제암리교회에 기독교 신자, 천도교신자 등 23명을 모이게하고 밖에서 불을 지르고 무차별 총격으로 모두를 몰살시킨 사건으로 후에 스코필드 박사 등에 의하여 전 세계에 진상이 알려진 우리의 슬픈 역사를 확인하고 나오는 출구 옆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음각의 팻말에 눈길이 멎었다.

해미성지로 향하는 우리 버스가 지나치는 마을 어귀마다 평화롭게 자리잡은 감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감들이 가을 풍광으로 참 곱고 예쁘다. 예배를 위해 드린 기도중 해미 성지에 관한 부분이다. “해미 성지에서 목격한 형틀, 이름도 생소한 사형도구와 사형예시도 앞에서 수천순교자들의 생명이 고통스럽게 거두어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의 호흡은 가빠졌고 우리의 말은 더 이상 언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상황에서 영원한 하나님나라를 사모하여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육신의 죽음을 택할 수 있을까? 주님!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 순교비

순천을 지나 여수로 접어들며 눈에 띄는 해안선, 하늘에는 음력 열이레의 보름달이 떠있고 그 달빛아래 포말로 부서지는 남해의 바닷물결이 우리를 반긴다. 여수 손양원 목사 기념관에서 눈이 부신 빛을 만났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안경을 쓴 작은 체구의 신사가 누워있는 사람의 발바닥을 입으로 빠는 디오라마(인형과 비슷)가 눈에 들어온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목사가 의술로는 방법이 없는 나환자의 발바닥에 고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모습 이란다. 나환자들을 향한 형언할 수 없는 사랑,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는 필설 밖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순교의 제물이 되신 손목사님! 님은 분명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이로 특별한 지음을 받은 분으로 여겨졌다.

조덕삼 장로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금산교회, 천년명찰 금산사에 바로 인접해있으면서도 그 위세에 전혀 굴하지 않고 작은 교회지만 1세기 동안 주변에서 큰 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자기 집 머슴으로 일하던 10여세 아래의 이자익을 같이 섬기는 교회에서 자기보다 먼저 장로로 서게 하시고 신학공부까지 후원하여 목사, 그것도 총회장을 몇회 연임하신 큰 지도자 되도록 지원하셨던 조장로님의 하나님중심 신앙과 큰 도량의 열매는 아니였을까? 두 집안은 지금까지 3대에 걸쳐 신앙으로 긴밀하게 연합되고 서로 돕는다고 했다.

순례의 전 과정을 지켜주시고 열심으로 참여하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획에서부터 해산할 때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도하며 준비하신 교역자님들과 임익수 팀장께도 감사를 전한다.

최성준 장로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기독교의 역사 7

1890년, 장로회 여학교 학생과 교사

1887년 6월 시작된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는 고아 한 학생으로 시작되었다. 1888년에 학생 두 명, 1889년에 학생 네 명이다. 학생 한 명이 병으로 죽기도 했다.

1889년 정동 1-11번지로 이전한 후에도 학생 수는 여전히 많지 않았다. 그해 12월 학생 수가 여덟 명, 그리고 학생 일인당 경비는 1년에 15달러 미만이었다.

1890년의 학교 상황을 언더우드 부인(L.H.Underwood)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도티 양이 맡고 있는 여학교에는

아홉 명의 어린 소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거의 가여덟 살 가량 된 소녀들입니다. 이 아이들도 가능한 한 스스로의 일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요리와 한국식 자수를 배우고 있으며 영어는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그 외에 한자 읽는 법과 한국의 고유어인 ‘언문(諺文)’을 배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과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소녀들이 후에 가정을 이룰 텐데 외국식으로 부적합하게 가르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식 아가씨들을 키우는 것

이 아니라 한국인 그리스도인을 키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장로회 여학교 학생들과 교사이다. 왼쪽이 2대 교장 헤이든, 그 오른쪽이 3대 교장 도티이다. 그 사이는 ‘종이’로 여겨지며, 열다섯 살에 결혼 후에 학생들에게 조선어와 성경을 지도하고, 바느질도 가르쳤다.(1889.12.29.도티) 학생 수



장로회 여학교 앞에서 학생과 교사들. 사진을 찍은 장소는 현재 중명전이 있는 자리에 있던 장로회 여학교 제2교사이다

는 여덟 살 가량 된 소녀 아홉 명이다.

이희천 정신여교 교감

2014년 피택 항존직을 소개합니다

2014년 10월 5일의 1차 선거와, 10월 12일의 2차 선거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항존직 피택자를 소개한다. 이 선거를 통해 장로 1명, 안수집사 15명, 권사 13명이 피택되었다. 피택자들은 앞으로 피택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015년 6월 창립기념 주일에 임직되어, 교회 안팎 여러 사역 현장의 주역으로 활동할 것이다. (가나다 순)

■ 장로



심동욱

■ 안수집사



김요섭



김유기



김유남



김찬귀



문창엽



박상돈



방정길



신태균



양현주



이상선



이우풍



전선재



전윤식



정종기



지태정

■ 권사



곽병남



남현숙



박문숙



성옥환



송영희



엄순남



엄혜숙



유순의



이광실



전숙정



조보연



조유경



조정애

코마인터뷰 | 친정 교회 찾아 베트남어 가르치는 이강우 집사

베트남어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 금지되어 있지만 산지에는 많은 소수부족들이 살고 있어 선교의 여지가 많은 땅이다.

이강우 집사는 베트남 유학시절 한인 교회를 방문했던 이재철 목사의 말씀이 마음에 남아 귀국 후에 주님의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30갑 활동을 하며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다. 양국 정상회담 때 베트남어 통역을 하기도 한 전문가인데, 언제부터인가 베트남어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에 대한 마음의 갈등이 있어왔다. 이사를 가는 바람에 교회를 옮긴지 몇 년 되었으나, 해외선교팀에서 베트남어 강사를 구할 때 두말없이 받아들이고, 매주 토요일 주님의교회를 찾는다. 직접 선교 현장에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선교지의 언어를 가르치며 후원할 수 있는 역할이 감사하다고 한다.

함줄함줄

토요일 오후 5시 정신학원 교육관에서는 남다른 열기가 뜨겁다. 청운대 교수이며 EBS수능 인강 강사인 이강우 집사의 가르침에 나이 든 학생들이 베트남어를 배우기 바쁘다. 우리나라와 세 번째로 많은 교역을 하는 나라이자 다수의 결혼이민자가 오는 나라, 베트남. 여전히 조금은 낯선 나라. 공식적으로 종교전도

알립니다

거기 누구 없소?



주님의교회 오랜 전통, 국물 진한 국수는 매주 주일마다 3,500그릇이 제공됩니다. 말없이 섬기는 봉사자들이 채소를 다듬고, 국물을 만들고, 국수를 삶는 일을 나누어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일흔 넘은 어르신이 힘든 사역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픕니다.

백짚장도 함께 들면 힘이 됩니다. 전화기를 들고 번호 눌러주세요. 010-2678-2007입니다.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교회 단신

권사회 10월 월례회 및 묵상 여행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이는 늦가을, 10월 15일 수요일 강화도 교산교회에 권사회원 75명이 가을여행을 다녀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겪어야했던 고난의 현장을 묵상하며 다녀온 여행길이다. 목적지인 강화로 가는 길에는 늦가을 풍성한 들녘이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듯 황금물결이 이마를 맞대고 넘실거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은 복 받은 땅이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때를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변화의 축복이다. 강화도 최초의 교회인 강화 교산교회에서 들려진 예배에서 조광민 목사는 “한알의 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특별히 강화지역은 믿음

의 흔적들이 많은 곳이고 목숨을 건 한사람의 믿음으로 지금은 200여 교회가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태동이고 신앙의 산실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큰 것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예배 후에 갑곶 순교성지로 이동해 신미양요 때 신앙을 지키다가 참수된 세 분의 순교자를 기념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기까지 수난당하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했다.

묵상여행!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 말씀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다시 확인하는 묵상예배 여행이었다. **김영희** 권사

알림

▶ 제9회 주님의교회 미술인선교회 정기전이 2014년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님의교회 제하 제2식당에서 펼쳐진다.

▶ 2014 신입 교사 대학이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3층 초등부실에서 개강한다.

▶ 2014 교사 힐링데이가 10월 26일 오후 3시 중예배실에서 어린이 교육목회원 교사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 예비 부부를 위한 제12회 결혼예비학교가 11월 2일부터 5주간에 걸쳐서 열린다.

교회사역일정

10.19(주): 추수감사주일

10.26(주): 입교·세례식

10.20(월): 181회 평양노회

11.2(주): 성찬주일

10.25(토):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사역박람회

통일선교를 위한 바자회

11.7(금): 금요기도회